

버지니아 울프의 “바로 그 지점”: 일반 독자의 선물의 독서법과 독특성의 행복론

정재식

I. 책 읽는 법 읽어주는 여자, 버지니아 울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위대한 소설가인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는 소설 못지않게 빼어난 에세이와 작품론을 많이 남겼다. 영국 문학사를 살펴보면 작가가 비평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데 창작과 비평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뛰어난 글을 많이 남긴 울프는 바로 그 전통을 잇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뛰어난 소설가로서 울프의 모습은 깊이 연구되어 있고 또 널리 알려져 있지만 비평가로서 그녀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¹⁾ 1926년 해

1)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울프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종합 평가하는 한 연구가 잘 보여주듯이 기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울프의 모더니즘과 여성주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논문들과 함께 “울프 텍스트에 대한 문화비평적인 접근과 독법”과 “울프의 단편 및 산문에 관한” 국내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김영주266-67). 울프의 책읽기 방식에 관해 주목해 볼 만한 탄탄한 최근 국내 연구로, 비평가와 독자로서의 울프의 모습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 하수정의 「문학/문화 비평가로서의 버지니아 울프」가 있다. 이 논문에는 일반 독자라는 개념 소개와 함께 울프의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한 간단한 분석이 실려 있다(188-9). 그 분석은 전체적으로

이즈 코트 학교(Hayes Court School)에서 행한 강연 원고로서 나중에 좀 더 수정되어서 『두 번째 일반 독자』(*The Second Common Reader*)에 실린 그녀의 에세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How Should One Read a Book?”)²⁾는 비평가로서 울프의 모습을 잘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에세이다.

이 에세이에서 울프는 마치 대학에 처음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따뜻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주는 선배 누나 혹은 언니처럼 독자에게 친근한 어조로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다.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울프는 이 글에서 읽기의 문제를 작가와 독자의 관계의 존재론 차원으로 끌어 올려 논하면서, 더 나아가 읽기와 비평 행위가 갖고 있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도출해 낸다. 그러한 울프의 작업은 문학뿐만 아니라 독자와 비평에 관한 다양한 현대 문학이론들과도 여러 측면에서 서로 흥미롭게 연결된다.

「책」에서 울프가 제시하는 책임기론은 우선 텍스트의 의미는 최종적으로 독자와 의식이나 반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의 고유한 독서와 가치를 강조하는 독자반응이론과 상당히 친근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독자의 탄생의 전제 조건으로 작가의 선물을 제시하고 그 선물에 가장 합당한 응답 방식으로 ‘작가가 되려고 할 것’(try to become him)(SC 259)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독자반응이론과 차이점이 있다. 한편 선물의 시작점으로서 작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와 그에게 영향을 받은 저자의 죽음 시리즈와도 상당히 다

울프의 기본적인 논지를 전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내용 요약 방식으로 간단하게 서술되다보니 울프가 보여주는 사유의 농밀함과 책임기의 희열의 의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울프의 책임기론에 관해 주목해 볼 만한 대표적인 국외 연구로는 마크 골드만(Mark Goldman)의 「버니시아 울프와 독자로서 비평가」(“Virginia Woolf and The Critic as Reader”)와 케이트 플린트(Kate Flint)의 「독특하게 책임기: 버니시아 울프와 읽기의 실천」(“Reading Uncommonly: Virginia Woolf and the Practice of Reading”)가 있다. 전자는 울프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독자로서 비평가」의 조건과 특징들을 울프의 여러 작품 속에서 찾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글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하수정의 논문과 비슷한 서술 방식을 보여 준다. 한편 플린트의 글은 울프에 관한 기존 페미니즘 비평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글쓰기의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생산했지만 울프의 책임기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울프의 독서법에 내재한 정치성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 2) 앞으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책」으로 표기하고 이 에세이의 본문 인용은 *The Second Common Reader*에서 하며 이후 이 책은 SC로 약칭하기로 한다.

르다. 그러나 여기서 울프가 말하는 작가를 작품과 독서의 절대적 기원의 지위를 갖는 존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울프에게 작가는 독자에게 선물을 주는 시작점으로 존재하지만 독자의 반응에 의해 변용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여는 중심점으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가 텍스트 의미의 절대적 기원이 되는 낭만주의적 텍스트 이론으로 울프의 독서론을 국한시켜서도 안 된다.

이처럼 「책」에서 제시되는 울프의 책읽기론은 독서에 관한 다양한 현대 비평 이론들과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어느 특정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울프의 독서론과 행복론을 논할 때 중요하게 사용되는 독특성(singularity) 역시 「책」의 고유한 맥락에 맞게 들뢰즈의 이론과 다른 이론을 결합시켜 만든 개념이다. 울프의 독서법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물의 독서’의 경우, 선물 하면 흔히 떠올리는 불가능성(the impossible)과 ‘돌아오는 것 없이 주는 것’에 기반을 둔 데리다의 선물론과 관계가 없다. 여기서 선물은 울프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작가와 독자의 만남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한 이론 대신 에세이 내에서 그녀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와 이미지(image) 등을 고려해서 선택한 용어다.

이상적인 작가와 독자의 만남의 방식을 체계적인 이론의 언어 대신 다양한 질감의 문학적 언어로 담아낸 「책」을 더욱 더 돋보이게 해 주는 것은 바로 울프의 생동감 넘치는 문체다. 그녀는 자신의 독서법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독자와 독단적이면서 자기 중심주의적 탐욕에 사로잡힌 ‘당대의 세상의 정복자’(SC 270)인 남성 권력자들과 대립시키면서,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독단적이면서 배타적인 남성 성과는 다른 감성으로 글을 쓰고 읽을 것을 권한다. 독서와 비평 방식에 대한 철학적 깊이와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잘 드러나는 성차와 계급 문제에 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녹아들어 있는 「책」은 자칫하면 상당히 무거운 에세이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울프는 그녀 특유의 가볍고 경쾌한 문체와 촌철살인적인 유머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자신의 조언을 전달하고 있다.

이 명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먼저 꼭 살펴보아야 할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에세이 모음집 『일반 독자』(*The Common Reader*)의 첫 시작에서 울프가 인용하고 있는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의 “일반 독자”(Common Reader)다. 존슨의 일반 독자는 신고전주의적 보편적 인간성에 기반을 두면서 인문주의적 특성과 동시에 보수성을 지닌 개념이다(이시연 182-90). 여기서 울프는 타자(특히 여성)에 대한 미학적, 윤리적 개방성을 존슨의 개념에 접목시켜 보수성을 극복한

일반 독자 개념을 만들어 낸다. 울프는 존슨의 “일반 독자”를 “지식을 전파하고 거기서 권위를 찾는 비평가/대학의 지식인으로서의 독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본능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즐거움으로 책을 읽어가는 독자”(1)로 요약한다. 그 다음 더 나아가 평범, 보통, 일반, 대중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common”을 특권의식에 가득 찬 기득권적 남성 비평권력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열정의 이름으로 변용시킨다. 특정 집단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고상한 지식과 권력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독자는 평범한 자들이다. 하지만 책읽기 자체를 즐기면서 그 즐거움을 창조적인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들은 탁월한 자들이 된다. 한 마디로 울프의 「책」은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욕망에 충실한 일반 독자의 책읽기론이면서 더 나아가 그들의 존재 방식을 문학적으로 구체화한 에세이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울프의 「자기만의 방」과 단편 「행복」(“Happiness”)을 「책」과 함께 읽어 보면서 울프의 독서법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행복론의 모델을 구상해 보는 것이다. 울프의 독서론은 선물의 독서로, 행복론은 독특성의 행복론으로 이름붙이기로 한다. 울프의 선물의 독서는 독자가 진정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창조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자는 작가가 주는 선물에 합당하게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작가와 독자가 진정한 선물의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견고한 자아(ego)가 제거³⁾된 상태에서 개체의 고유성이 극대화되는 존재 양태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 양태를 독특성으로 부르고자 한다, 독특성을 직접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작품 속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울프는 독특성의 논리와 감각을 누구보다 잘 표현한 작가다. 독특성의 논리와 친화력이 있는 울프의 선물의 독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경이로움과 역동성을 체험하게 되는 기쁨의 독서 방식이다. 바로 그 희열을 자신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는 일반 독자들은 홀로 고립되지 않고 서로 독서의 기쁨을 함께 향유, 확산시켜 가면서 항상 ‘우리’로서 존재한다. 독특성을 기반으로 울프의 책읽기론의 핵심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행복론을 도출하는 우리의 시도는 작가의 선물을 자신

3) 1934년 6월 29일에 쓴 편지에서 울프는 “자아(ego)의 완전한 제거”(the complete elimination of the ego)를 핵심으로 하는 글쓰기와 읽기 방식에 대한 언급을 한다(Flint 187 재인용).

의 언어로 새롭게 써 나가라는 울프의 조언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II. 울프의 선물의 독서법

「책」은 어려운 비평용어 대신 평이한 언어와 친근한 대화체로 쓰여지긴 했지만, 동시에 두 겹의 사유를 요구하는 역설로 촘촘히 짜여진 에세이다. 따라서 이분법적 혹은 도식적 사고의 틀로 작품을 읽거나 쉽게 보이는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꼼꼼히 읽지 않을 경우 울프가 말하려는 핵심을 놓치기가 쉽다. 앞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울프의 선물의 독서법은 능동과 수동, 구체와 추상 그리고 개체와 보편 등과 같은 개념의 쌍들이 이분법적 대립관계로 묶여 있지 않아 독자의 섬세하고 치밀한 읽기를 요구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울프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독자의 고유한 읽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바로 작가가 주는 것’(SC 259)에 대한 독자의 충실한 응답을 제시한다.

물론 여기서 울프가 독자는 작가에 대해 철저히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책」의 후반부에서 울프는 독자의 능동적인 판단 능력을 강조하면서 정확한 비평을 하는 것을 독자의 중요한 책임(SC 269)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독자의 충실한 응답에 내포되어 있는 수동성은 작가의 선물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자신의 고유한 사유와 감성의 일부로 변용시키면서 작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물의 독서에서 일반 독자가 처음에 경험해야 하는 수동성은 이미 그 안에 능동성이 스며 들어가 있는 능동적 수동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개념의 쌍들도 모두 것처럼 두 겹의 사유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책」에서 틈틈이 감지되는 역설들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논리적 불일치가 아니라 이분법으로 국한되지 않는 여러 층위의 의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맞물리면서 발생시키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편의적으로 어느 한 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다른 것들을 은연중에 혹은 고의적으로 축소시켜 버린다면 울프의 글쓰기에 담겨 있는 사유의 풍요로움과 깊이를 제대로 체험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또 하나의 예를 보자. 울프는 “기존의 법과 관습에 묶이지 않을 수 있

는” 독자들이 자신의 “자유”(SC 258)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철저한 자기 통제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독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사용한다. 하나의 장미 덩굴에 물을 줄기 위해서 커다란 짐의 반 이상에 물을 쏟아 붓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고 훈련을 통해 정확하고 풍부하게 “바로 그 지점”(the very spot)(SC 258)에 물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에세이에서 제시되는 울프의 책 읽는 방법의 “바로 그 지점”은 어디이며 그것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 우리는 논문 제목에서처럼 선물의 독서를 “바로 그 지점”으로 삼으면서 울프의 독서론을 분석하기로 한다.

울프는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책을 읽는 독자들이 드문 것을 안타까워한다(SC 259). 이 지적은 분명히 모든 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좀 더 그 적용 범위를 국한해 보면 당시의 권위주의적이고 권력화된 남성 비평가(SC 270)들에게 특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창작의 고통과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극히 주관적인 편견으로 작품을 평가, 재단하는 당시 비평 권력에 대한 울프의 비판의식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깊게 스며들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울프에게 자유롭고 창조적인 책임기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책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고 (혹은 줄 수) 있지?’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독자는 작품 혹은 작가에 대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견해가 편견이나 독단으로 변질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울프는 연이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작가를 좌지우지 말라: 그가 되라. 그의 동업자, 공모자(accomplice)가 되라”(SC 259). 울프는 친구 차원을 넘어 범죄나 은밀한 책략을 함께 하는 공모자라는 도발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독자는 작가와의 만남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열고 작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뒤로 물러나서 손쉬운 비판을 하는 대신 ‘작품 속 깊숙이 자신을 던져서 그 속으로 스며들어 갈 때’ 비로소 독자는 작가가 주고 있는 혹은 주려고 하는 “훨씬 더 구체적인” 선물과 제대로 대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SC 259).

이 대목에서 명심해야 될 점은 작가와 독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선물의 독서에서 선물은 주는 것과 응답 그리고 응답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주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다. 여기서 작가와 독자는 서로 견고한 닫힌 자아(ego)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자성이 자신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순간 각각의 고유성이 극대화되는 개체로서 존재한다. 이 경우 독자는 작가/타자에게 자신을 절대적으로 개방하는 선택적/원초적 수동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자신만의 진정한 독립적 혹은 주체적 독서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작가가 주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자신을 여는 행위는 일견 수동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이미 그 안에 적극적인 능동성과 구성력의 씨앗이 담겨 있다.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울프의 책읽기는 바로 그 열림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한 열림을 기반으로 울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작가의 작품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독자가 “가장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읽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 즉 작가가 선사하는 “어휘들의 위험(danger)과 난해함(difficulties)”과 부딪히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실험적”으로 써 가는 것이다(SC 259). 작가의 언어의 위험과 난해함을 긍정하고 실험하면서 자신만의 언어로 써 가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작가의 언어에는 독자의 고유한 세계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함이 있다. 그 결과 독자는 작가의 언어에 완전히 압도되면서 자신의 고유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프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위험을 관통해 나갈 때 비로소 작가가 되는 것이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가 되도록 하라”는 울프의 조언은 작가를 절대적 기원으로 삼고 작가와 같은 언어, 감성, 사유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자신을 작가와 동일시하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울프가 말하는 작가가 되는 것은 주체적이면서 창조적인 독자가 되기 위한 선택적 조건에 해당한다. 그녀에게 작가-되기는 작가가 선사하는 섬세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낯설고 파괴적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틈을 자신의 내부에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틈새에서 독자는 자신을 뒤흔들 수 있는 위력적인 작가의 언어를 새롭게 다양한 실험적인 언어로 되받아 쓸 수 있다. 여기에 작가의 선물을 충실히 수용할 수 있는 “지각”(perception)과 그것을 창조적으로 변용시킬 수 있는 “상상력”(imagination)(SC 261)이 함께 어우러질 때 독자는 작가의 선물에 가장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선물의 관계로 만나는 작가와 독자의 존재 양태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견고한 자아를 제거한 이후의 존재 양태인 독특성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비평에서 중요한 용어로 등장하는 독특성은

지극히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인 지점’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Attridge 63). 또한 이미 주어진 전체의 논리나 구조의 한 부분으로 환원되어 버리면서 그 논리에 따라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반복을 하는 개체, 혹은 견고하게 닫혀 버려 외부와 소통할 수 없는 자아의 양태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독특성은 자신이 프레임 속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타자와의 만남/연결을 통해서 그것의 고유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개체의 양태를 의미한다. 것처럼 외부와의 역동적인 접속과 창조성의 반복 속에서 자신의 고유성이 극대화되는 개체 양태인 독특성은 견고한 하나의 점(point)이 아니라 삶의 무한한 차이(difference)들의 역동적인 흐름인 생성(becoming)⁴⁾의 기본 단위 즉 자아/주체 없는 개체의 고유성이 극대화된 존재 양태라고 할 수 있다. 독특성의 관점에서 보면 글쓰기에서 자아를 제거하려는 울프의 시도는 단순히 자아 해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고유성이 극대화되는 개체의 존재 방식을 창조하려는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작가가 되라”는 울프의 조언을 작가를 우월화하는 모방이나 동일시의 논리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의 창조적인 접속의 양태에 대한 성찰로 해석할 수 있게 개념이 바로 들뢰즈의 “생성/되기(becoming)”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생성을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단히 정의해 본다면 역동적인 접속과 분화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생하게 하는 삶의 무한한 차이(difference)들의 역동적인 흐름(flow)이라고 할 수 있다. 생성은 서로 다른 항들이 조우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동일시의 논리로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구별할 수 없는 미규정성의 영역(a zone of indistinction and indiscernibility) 속에서 질적인 변용이 발생하는 논리를 지칭한다(Critical xxx). 독특성은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개체의 양태다, 들뢰즈는 생성/되기와 독특성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이것임”(haecceity)을 생명력 넘치는 언어로 예술화한 대표적인 작가로 여러 저작에서 울프를 언급한다. 들뢰즈의 탈-인칭적 개별화를 지칭하는 “이것임” 개념 정의 및 그것과 울프의 연관성에 관해서 『천 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 262-80 참조. 그렇다고 「책」에서 제시하는 울프의 독서법이 완전한 들뢰즈적 생성의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다. 단편 「행복」이나 장편 소설 『파도』(The Waves)의 경우는 들뢰즈적 생성의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 에세이에서 등장하는 작가와 독자의 존재 방식을 완전한 탈인칭적 생성의 전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독특성이라는 용어도 주체없는 개체화를 강조한 들뢰즈의 이론과 타자성을 강조한 데리다의 사유를 서로 혼합해서 울프의 텍스트에 맞게 변용시킨 개념이다. 한편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독특성과 데리다와 레비나스적 타자성과 윤리에 기반을 둔 애트리지의 독특성 논의와의 차이는, 후자의 경우 단편 「행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탈인칭적 감각의 덩어리이면서 생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들뢰즈적 독특성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독특성은 울프의 선물의 독서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울프의 독서론에서 독자의 고유성과 독립성이 가장 확보되는 순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작가가 주는 선물에 먼저 응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작가의 언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용시켜 창조적으로 반복하는 읽기와 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각각의 고유성이 타자에 대한 열림을 통해 확보되는 선물의 독서에서 작가는 독자와의 선물의 관계로의 만남의 시작점이 되지만 독자에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는 절대적 기원으로 특권화 되지 않는다. 울프에게 창조적인 독자의 작가-되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타자와의 조우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자신을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성이 확보되는 독특성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독자와 마찬가지로 선물의 독서에서 작가는 독특성으로 존재할 때 자신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선물의 독서 구조에서 독특성은 작가와 독자의 존재 양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울프가 제시하는 “잔해 읽기”(rubbish reading)의 예를 보자. 울프는 “도서관에서 쌓여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남성, 여성, 나귀에 관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다양한 방식의 써나간 기록들(전기, 회고록 등)이라고 말한다. 예술적 역량이 극대화된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들과는 다르지만 그러한 기록들을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세히 읽어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주조(cast)된 인간 삶의 파편들이 선사하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울프는 말한다. 그녀는 그러한 기록을 읽어 나가는 것을 “잔해 읽기”라고 이름 붙인다(SC 263).

그런데 울프는 잔해 읽기는 궁극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facts)에 머무르면서 허구(fiction)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삶의 “전체의 진실”(the whole truth)를 생산하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참된 것”(half-truth)(SC 263)을 선사하는 데 머무르기 때문이다. 잔해 읽기에서 각각의 사실이나 개별적인 사실, 이미지, 사물들은 우리 삶의 단면들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중요하지만 깊이 있는 문학적 예술성이나 철학적 깊이를 가지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대목은 문학의 영역에서 허구(fiction)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 주는 장면으로 여기서 허구는 진실(truth)과 이분법적으로 대립하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 차원의 진실로서는 포착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다.

위대한 문학의 일부를 이루는 삶의 단편들은 절반의 진실 혹은 참된 것(half-truth)에 머무는 잔해 읽기의 먼지나 조각 차원을 넘어 ‘열린 전체’를 창출할 있는 창조성의 개체 혹은 단위가 된다. 주어진 전체의 특정 부분으로 환원되는 조각이 아니라 새로움을 촉발시키는 생성(becoming)의 조각, 그것을 우리는 독특성이라고 부른다. 선물의 독서 관계로 만나는 작가와 독자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역동적인 삶의 생성의 리듬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사물과 이미지들 모두 독특성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울프가 말하는 “전체의 진실”은 바로 이 독특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것의 개념적 깊이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 울프는 각 개체의 고유성을 획일화시키면서 위압적인 힘을 행사하는 전체 혹은 절대성을 비판하면서, 철저히 독특성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울림으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진실 혹은 참된 것을 “전체의 진실”이라고 부른다. “절반의 진실”의 한계를 넘어선 전체는 뛰어난 문학작품들이 생산하는 독특성들의 조우와 울림으로 구현된 전체로서, 그것의 최종적 형태는 “더 훌륭한 추상성”(the greater abstractness), “허구의 더 순수한 진실”(the purer truth of fiction)(SC 264)이 된다.

이 대목에서 추상성은 구체성이 결여된 무능한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사유의 깊이와 감각의 풍요로움이 정수에 이른 순수(purity)의 상태를 말한다. 독특성이 만들어 내는 순수는 더러움이 배제된 깨끗함 혹은 순진함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다양한 구체성이 이글거리는 무정형의 상태를 지칭한다. 울프가 자주 사용하는 파도 이미지로 빌려 표현해 본다면 독특성이 만들어 내는 ‘더 순수한 진실 혹은 참된 것의 형태’는 위압적인 힘을 과시하는 거대한 남성적 파도가 아니라 무한한 물방울들이 선물과 응답의 양태로 각각의 고유한 역량을 펼쳐내는 역동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파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울프는 독특성을 기반으로 한 선물의 독서를 수행하는 독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작품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는 책임이다. 울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전달되는 “무수히 다양한 삶의 인상들”(these multitudinous impressions)을 단순히 체험하고 느끼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SC 266). 그런데 독자가 편견과 유아론에 가득 차 작품이 선사하는 다양한 감각의 생생함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함부로 비평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무분별하게 감

각의 힘에 압도되어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 둘 다 모두 작품에 대해 정확한 판단(judgement)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이미 주어진 자신의 독단적인 평가의 틀로 작품을 재단하는 것과 달리, 작품이 발산하는 다양한 감각의 결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그것의 질(quality)과 잠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한 지점이다. 울프가 말하는 독자의 “책임”(SC 269)은 바로 그러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의 전반부를 읽어 보면 울프는 작품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처럼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울프의 논의를 섬세하게 따라가다 보면 울프는 작품에 관한 평가,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 비평 방식 혹은 무능력한 독자의 제 멋대로 읽기의 폐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울프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진정한 독자의 작품에 관한 판단⁵⁾을 내릴 수 있는 필수적인 단계로 기다림을 제시한다. 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책이 선사하는 “수많은 감각들은 강렬한 만큼 동시에 쉽게 사라져” 버리면서 마치 격렬한 폭발 이후 남겨진 파편이나 먼지처럼 독자에게 다가온다. 이때 그녀는 “먼지가 가라앉아질 때까지 기다려라”(SC 266)라고 조언한다. “걸으면서, 이야기 하면서 장미꽃에서 시들은 잎들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혹은 잠에 빠지면서” 부딪힘으로 인한 균열과 혼란스러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책은 “새로운 다른 모습으로”(differently)⁶⁾ 즉 독특성으로서의 파편들이 만들어 내는 만들어 내는 “전체”(a whole)로서 되돌아오게 된다(SC 267). 작품이 선사하는 다양한 종류의 감각의 덩어리들을 창조적인 생성의 조각으로 상승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기다림이다.

그러한 기다림을 통과한 독자는 이제 작가의 친구로서 진정한 비평을 할 수

5) 들뢰즈는 선악의 가치체계에 기반을 둔 종교적 심판의 원리로서 “Judgement”와 그와 대조적으로 이분법적 가치체계의 한계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가치들과 서로 생산적으로 접촉될 수 있는 힘의 질(quality)과 양태를 판단, 평가하는 행위로서 “judgement”를 비교하면서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Deleuze, *Essays* 36~52 참조).

6) We must pass judgement upon these multitudinous impressions; we must make out of these fleeting shapes one that is hard and lasting. But not directly. Wait for the dust of reading to settle; for the conflict and the questioning to die down; walk, talk, pull the dead petals from a rose, or fall asleep. Then suddenly without our willing it, for it is thus that Nature undertakes these transitions, the book will return, but differently. (SC 266)

있게 된다. 울프는 작가의 선물에 제대로 응답한 이후에 내리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한다’(SC 267, 270). 바로 그런 평가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독자만이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권위주의적 비평가의 비평의 폭력 앞에서 작가의 “공범자”이자 친구로서 작가 옆에서 충실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기다림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실천하는 독자들만이 작품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평가 그리고 감동을 꼭꼭 눌러 쓴 답장을 작가에게 보낼 수 있다. 울프는 그러한 ‘독자의 답장은 하늘의 공기로 흡수되면서 작가가 작품을 써 나갈 때 마다 작가의 숨결의 일부가 된다’(SC 269)고 말한다. 그렇게 작가에게 흡입된 답장은, 비록 권력화된 비평처럼 ‘출판의 형태로 활자화’ 되지는 않지만 작가의 숨결의 일부가 되면서 그/그녀의 창조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SC 269-70). 창공에서 숨결로써 만나는 작가와 독자, 그것이 바로 독특성으로서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방식이다.

III. 일반독자의 독특성의 행복론

「책」에서 울프가 선사하는 책임기론의 또 하나의 매력은 그것을 일반 독자의 행복론으로 확장해서 읽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울프가 이 에세이에서 직접적으로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울프의 선물의 독서법으로 꼼꼼하게 이 글을 읽어 본 독자라면 이 에세이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 바로 일반 독자의 행복론임을 깨닫게 된다. 선물의 독서가 단순한 책임기론 차원을 넘어 반복적으로 체험할 할 수 있는 회열의 기술임을 보여 주는 울프의 일반 독자의 행복론은 그녀의 단편 「행복」과 『자기만의 방』과 같은 다른 텍스트들과 겹쳐서 읽어 볼 때 보다 생동감있게 구체화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행복에 관한 직접적인 화려한 수사는 전혀 없지만 「책」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행복에 관한 각종 담론들 틈바구니에서도 전혀 그 빛을 잃지 않는다. 울프의 행복론은 돈, 권력, 외모 등 우리의 욕망을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구획화, 획일화시켜버리는 가치 체계에 순응하면서 얻게 되는 안락함 혹은 세속적 권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행복을 생각하게 한다. 울프의 행복론은 왜곡된 비교의 논리를 기반으로 타인의 열등함을 통해 자신

의 힘을 확인하거나 혹은 반대로 타인의 힘에 압도되어 주체성을 상실한 채 수동적인 거울 역할에 머무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여성은 지난 수 세기동안 남성을 원래 크기보다 두 배로 확대해서 반사시켜 주는 마술적이면서 달콤한 힘을 갖고 있는 거울로서 봉사해왔다”(35). “판결을 내리고 원주민을 개화시키고 법률을 제정하고 책을 쓰고 옷을 차려입고 연회에서 연설을 하는”(36) 남성의 힘은 바로 수동적으로 자신을 2배로 반사시켜주는데 순응하는 여성에게서 나온다. “여성들이 열등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권력을 두 배로 확대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기 때문”(36)에 남성은 끊임없이 여성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렇게 폭력적인 가부장제적 남성을 위해 “마술적이면서 달콤한” 수동적인 거울에 되는 여성과 권위적인 비평가의 힘에 압도되어 자신의 고유한 책임기를 포기한 순응적인 독자는 구조적으로 서로 닮아 있다. 울프의 “일반독자”는 “거울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대상”의 실체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수동적인 반사경을 깨뜨려 버릴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타자의 열등감과 무력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자가 아니라 타자의 선물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과 역량이 극대화되는 독특성으로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울프가 꿈꾸는 일반 독자의 존재 방식이다.

울프의 단편 「행복」은 독특성으로서 존재 양태와 그렇게 존재하면서 느끼는 행복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단편은 45세의 독신남 엘튼(Elton)과 이웃 서턴(Sutton) 부인이 함께 나누는 짧은 일상의 대화들과 엘튼의 내면을 섬세하면서도 생생하게 묘사하는 화자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편의 중요한 특징은 엘튼이 체험하는 행복의 느낌이 구체적인 사건이나 설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관통하는 생생한 감각의 흐름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이다. 주인공 엘튼은 허리를 숙이고 바지에 붙은 흰 실오라기를 털어 버릴 때 자신을 장미꽃에서 떨어진 꽃잎 하나로 체험한다. 그리고 서턴 부인과 다시 대화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흥조로 가득한 “꽃잎들의 덩어리”(compact of many petals) 자체가 된 것으로 느낀다. 견고한 남성적 자아 대신 흥조 가득한 꽃잎으로 존재하는 엘튼은 눈사태(avalanche)처럼 미끄러지듯이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는 감각(sensation)들이 자신을 휘어 감는 것을 느낀다(178). 엘튼은 무한히 다양한 감각들의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독특성으로 삶의 생명력이 선사하는 황홀감을 맛보게

된다. 여기서 엘튼은 인간/남성 중심의 기존의 자아(주체)의 형태와 달리, 삶의 생명력을 한껏 향유할 수 있는 탈-인칭적인 감각의 덩어리로 존재한다. 그러한 존재 양태는 고유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된 개별성의 한계를 넘어 외부와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 분화, 변용될 수 있는 자유로운 흐름이 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행복에는 항상 이런 강렬한 흥분이 있다. 그것은 날아갈 듯 기분이 고양된 것도 혹은 환희도 아니다, 찬양도, 명성도 그리고 건강도 아니다. (그는 2마일만 걸어도 지쳐 버린다) 그가 무신론자, 회의주의자, 세례를 받지 않은 자이긴 하지만 그것은 신비한 상태, 황홀경, 희열(ecstasy)라고 할 수 있다. 남자들을 신부(priests)로 변화하게 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시클라멘⁷⁾같이 풀을 먹여 뺏뺏해진 주름 장식을 얼굴 주위에 두른 체 거리를 활보하면서 삶의 정점을 체험하게 하거나 입을 꼭 다물고 눈을 똑바로 뜨게 해 주는 희열과 친화력이 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앞의 무아지경은 사람들을 구속하지만 엘튼의 희열은 그를 자유롭게 한다. 진실로 엘튼의 희열은 그를 모든 사람과 사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었다. (180)

In happiness there is always this terrific exaltation. It is not high spirits; nor rapture; nor praise, fame or health (he could not walk two mile without feeling done up) it is a mystic state, a trance, an ecstasy which, for all that he was atheistical, sceptical, unbaptised and all the rest of it; had [,] he suspected [,] some affinity with the ecstasy that turned men priests, sent women in the prime of life trudging the streets with starched cyclamen-like frills about their faces, and set lips and stony eyes; but with this difference; them it prisoned; him it set free. It freed him from all dependence upon anyone upon anything.

서턴 부인과 대화 중 엘튼은 갑자기 황홀경(ecstasy)에 빠지면서 진한 행복감을 맛본다. 여기서 올프는 엘튼이 느끼는 황홀경은 종교적 체험이 주는 황홀경과 어느 정도 친화력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을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 체계에 구속되게 만드는 세속화된 종교가 선사하는 즐거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두 희열 사이의 차이는 바로 자유의 유무에 달려 있다. 기존에

7) 시클라멘(Cyclamen)은 잎의 모양이 특이하며 꽃이 없어도 충분한 관상가치가 있는 추운 겨울에 흔히 볼 수 있는 예쁜 화초다.

주어진 가치 체계로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엘튼의 고유한 희열, 그것의 기반은 바로 자유가 선물하는 기쁨이다. 각종 이데올로기와 독단적인 이념 그리고 고착화된 관습의 족쇄로부터 빠져 나와 유유히 허공을 가르는 한 떨기 꽃잎으로서 체험하는 자유야말로 울프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울프는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엘튼의 희열이 일시적인 것이고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사실이다.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당히 모호한 마무리이긴 하지만 이 작품의 결말을 「책」의 맥락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엘튼이 체험하는 희열은 독특성의 희열의 한 형태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일회성으로 홀연히 사라지거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 연약함 역시 그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엘튼이 체험하는 희열이 즉물적인 일시적인 자유 차원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새롭게 반복될 수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독특성과 자유의 문제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이다.

독특성으로서 체험하는 자유는 자기중심적 자아가 추구하는 이기적인 자유와 전혀 다르다. 또한 험난한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자족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자유와도 다르다. 엘튼은 꽃잎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체험하는 자유의 한 가지 양태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무한히 다양한 삶의 감각들과 조우하면서 자신을 열고 타자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만남과 그러한 만남을 새롭게 반복할 수 있는 방식을 창안하지 못한다면 엘튼을 휘감았던 행복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락

8) 들뢰즈의 명민한 주석가 콜부룩(Colebrook)은 탈-인칭적 글쓰기와 강도(intensity)의 예로 울프의 「행복」을 제시한다(155-57). 들뢰즈의 강도 개념과 탈-인칭적 글쓰기에 입각해서 콜부룩은 「행복」을 통해 들뢰즈의 난해한 철학 개념들(강도, 독특성, 탈인칭적 글쓰기 등)을 섬세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학 작품으로서 「행복」이 갖고 있는 독특한 리듬과 생명력 역시 잘 포착하고 있다. 바로 그런 면에서 그녀의 「행복」 해석은 문학과 철학의 생산적인 접속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콜부룩은 울프의 해안이 돋보이는 마지막 장면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작품 자체의 의미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보다 들뢰즈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로 「행복」의 깊이를 축소시키는 한계를 보인다. 왜냐하면 서툰은 독특성의 양태로 존재하면서 커다란 희열을 체험하지만, 어느 순간 냉엄한 현실의 틀 속에서 희열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강도가 약화되면서 그 체험이 일시적이 될 수도 있음을 울프가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울프의 『행복』은 창조성의 원천으로 반복될 수 있는 독특성의 양태를 좀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작품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음을 울프는 암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특성으로서 체험하는 행복을 창조적으로 반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더 갖추어야 하는가?

「책」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는 유머 넘치는 울프의 꿈을 통해 위의 질문에 대해 답해 보면서 울프의 행복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나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꿈을 꾸니다.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을 때 세상의 위대한 정복자,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상—그들의 왕관, 월계관 그리고 불멸의 대리석에 깊게 새겨진 그들의 이름—을 받으러 오는 날을 말이지. 그때 절대자께서 우리들이 팔짱에 책을 끼고 오는 것을 보고 약간 부러워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봐, 베드로, 저들은 따로 보상이 필요없나봐.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게 줄 것이 없는데. 그들은 책 읽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라구. (270)

I have sometimes dreamt, at least, that when the Day of Judgment dawns and the great conquerors and lawyers and statesmen come to receive their rewards—their crowns, their laurels, their names carved indelibly upon imperishable marble—the Almighty will turn to Peter and will say, not without a certain envy when He sees us coming with our book under arms, ‘Look, these need no reward. We have nothing to give them here. They have loved reading.

여기서 울프는 타자를 배제하고 그들의 약함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삼으면서 폭식성에 사로잡힌 가부장제적 남성성의 특성을 촌철살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세상의 위대한 정복자, 법률가, 정치인” 모두 울프의 시대에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즉물적인 쾌락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 권력, 명예 등의 가치를 이상화하면서 그것들을 거대한 상징체계로 만들고 그 속에서 굶주린 맹수처럼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세상의 “위대한 정복자”들은 “불변하는 대리석”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는 허영으로 가득한 자들이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무한히 다양한 감각들이 선사하는 즐거움에 무지하고 자신의 영역 안으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자와 함께 기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병리적인 그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화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만족을 모르는 자들이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져야 하는 탐욕과 지배욕에 사로잡힌 집단들이다. 진정으로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심판의 날에서조차 더 많은 보상과 권력을 탐하면서 자신이 최고 혹은 적어도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

리는 그들의 폭력성과 어리석음을 보여 주면서 울프는 가부장제적 남성성의 병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자기만의 방』의 거울 비유에서 확인했듯이 “세상의 위대한 정복자”들은 대표적인 타자인 여성을 수동적인 거울로 만들어 자신들의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자들이다. 울프가 이 에세이에서 비판해왔던 작가와 작품에 폭력적인 권위를 행사하던 비평가들도 “세상의 위대한 정복자.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 그룹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엄숙한 심판의 날에 절대적 완벽함 대신 일반독자들에게 약간의 “부러움”을 갖게 된 친근한 신의 모습에서 울프가 보여 주는 유머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판과 판단/평가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judgement”는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울프가 보여 주는 사유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적인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이분법적 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남성적인 종교적 한계를 보여 준다는 이유로 『자기만의 방』에서 밀턴(Milton)을 극복해야 할 “악령”(bogy)(114)에 비유한 울프는 죄와 심판의 논리에 기반을 둔 종교체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래서 그녀는 심판의 날(Judgement)에 두려운 심판자로 등장하는 절대자 대신 인간적이며 친근한 절대자를 등장시키면서 엄격한 심판의 논리에 균열을 낸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선물의 독서에서 작가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후 내리는 정확한 판단과 평가는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반 독자의 책임이다. 것처럼 공감(sympathy)과 엄격함(severity)이 함께 하는 비평(SC 270)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독자들은 책의 범위를 넘어서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서도 타자성과 창조성에 입각해서 정확한 판단과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선물의 독서를 수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정복자들의 화려한 자기 과시 이면에 숨겨있는 불안감과 추함을 통렬한 유머로 정확히 폭로하고 그와는 다른 종류의 삶과 행복의 가치를 체화해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그러한 울프의 일반독자는 심판의 날 정치가나 권력자처럼 신에게 더 많은 상(reward)과 영광을 달라고 조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들은 이미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일반독자에게 선물의 독서는 그 과정 자체가 보상⁹⁾이다. 그들은 그 외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선물의 독서는

9)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울프의 마지막 꿈 장면에서 우리가 끌어낸 행복론은 스피노자의 『윤리학』(Ethics)의 마지막 명제(Proposition 42) “지복은 미덕의 보상이 아니라 미덕 자체가”(Blessedness is not the reward of virtue, but virtue itself)(315)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성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의 생산학이면서 행복감을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실천론이다. 심판의 날 절대자조차 부러워할 수 있는 일반독자들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울프가 꿈꾸는 일반 독자들의 행복의 정수이다.

작가를 편견과 독선에 찬 틀로 재단하던 남성중심주의 비평이 “중단되는 지점”(in abeyance, SC 270)에서 행복한 일반 독자들은 진정한 판단과 평가에 의한 비평을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앞에서 인용한 심판의 날 유머 바로 앞에서 울프는 “아무리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읽는가?”(SC 270)라고 반문한다. 즉 그러한 비평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울프가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울프는 어떤 특정한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책임기의 즐거움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녀의 질문(실은 강한 부정)을 지금까지 공들여 설명해 오던 정확한 판단/평가 능력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반 독자의 판단/비평 능력은 책임기 자체를 즐기면서 작가가 주는 선물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독자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반 독자는 그런 비평 능력을 목적으로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작가의 선물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그 능력을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주어진 선물은 일반 독자의 희열을 개인의 차원을 넘어 타인과 공유하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덤으로 주어진 선물 즉 비평/판단 능력으로 일반 독자는 일말의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울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독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비평가라고 불리는 아주 예외적인 존재들에게 속해 있는 더 큰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SC 270). 화려한 세속적 영광 대신 이미 충분히 행복한 일반 독자에게는 책임이 주어진다. 선물의 독서를 제대로 수행하고 그 기쁨을 주위와 함께 나누는 책임, 무거운 부채를 지니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을 더욱 더 확산시키는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한 선물의 독서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사실 드물고도 어려운 일이다. 현실도피를 하지 않으면서 현실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과 가치체계에 지배받지 않으면서 그와는 다른 향유를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대단한

용기와 뚜렷한 신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길이다. 각종 이데올로기와 자기중심적 통념과 편견의 견고한 격자들로 촘촘히 짜여진 현실세계는 한 떨기 꽃잎처럼 허공을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기쁨을 창출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포획하려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배 체제 시스템에 기생하거나 순응하는 자들에게 독특성의 희열은 자신들의 체제를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울프의 일반 독자들은 자기중심적 자아 혹은 소외된 혼자가 아니라 선물의 독서를 향유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실 세계의 유혹이나 폭력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기쁨을 생산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우연적인 것으로 현실 세계에서 소외되어 버리지 않고 선물의 관계로 접속하면서 자유와 행복을 반복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울프가 일반 독자를 칭할 때 “우리” 혹은 “그들”과 같은 복수형으로 부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위대한 정복자”들의 쾌락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을 생산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독특성의 독자들, 그들은 바로 유머 넘치는 울프의 신이 부러워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일반 독자들이다.

(아주대)

인용문헌

- 김영주. 「버지니아 울프 다시 읽기: 버지니아 울프 국내 연구동향」. 『안과 밖』 20 (2006): 252-68.
- 이시연. 「존슨 문학관의 근대성과 보수성 재론」. 『안과 밖』 6 (1999): 168-90.
- 하수정. 「문학/문화 비평가로서의 버지니아 울프」. 『신영어영문학』 42 (2009): 177-202.
- Attridge, Derek. *The Singularity of Literature*. New York: Routledge, 2004.
- Colebrook, Clarie. *Understanding Deleuze*. N.S.W: Allen & Unwin, 2002.
- Deleuze, Gilles.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 _____. *Essays Critical and Clinical*. Trans. Daniel W. Smith and Michael A. Greco.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 Flint, Kate. “Reading Uncommonly: Virginia Woolf and the Practice of Reading.” *The Yearbook of English Studies* 26 (1996): 187-98.
- Goldman, Mark. “Virginia Woolf and The Critic as Reader.” *PMLA*. 80.3 (1965): 275-84.
- Spinoza, Benedictus de. *Ethics*. Ed. and Trans. G.H.R. Parkins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New York: Harcourt, 1989.
- _____. “Happiness.” *The Complete Shorter Fiction of Virginia Woolf*. Ed. Susan Dick. New York: Harcourt, 1985. 178-80.
- _____. “How Should One Read a Book.” *The Second Common Reader*. Ed. Andrew McNeillie. New York: Harcourt, 1986. 258-70.
- _____. *The Common Reader*. Ed. Andrew McNeillie. New York: Harcourt, 1984.

Abstract

On “The Very Spot” in Virginia Woolf’s Advice:
The Reading Method as Gift and Happiness of Singularity

Jaesik Chung

By locating Virginia Woolf’s “How One Should Read a Book,” which can be called ‘the common reader’s manifesto of reading,’ in the context of her other works such as “Happiness” and *A Room of One’s Own*,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notions of ‘the reading method as gift’ and ‘the happiness of singularity’ are formulated and presented in the essay. Woolf’s reading method, based on her profound ethical and on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 is structured as the relation of the gift. Woolf suggests becoming-author as the key element in her reading method of gift. Becoming-author, as the reader’s proper response to the gift given by the author, is comprised of two stages; the first one is to allow oneself to be open to properly receive the gift from the author by eliminating the closed ego. Based on this reception, the readers should furthermore transform the gift into the source of his or her own creativity through the diverse experimentations of the author’s language. Such a form of creativity serves as a substantial foundation for the joyful reading occurring in Woolf’s reading as gift.

Of interest here is that the joy of reading can be extended to the principle of ‘happiness of singularity.’ By singularity, I mean the mode of individual existence in which one’s potentiality and creativity can be powerfully intensified and actualized by one’s encounter with the Other (or multiplicities). This mode of singularity gives the joy of freedom by liberating us from the shackles of pre-established ideas, social prejudices and ideologies. In the matrix of Woolf’s way of reading, the author and the readers met as the mode of singularity, and they

weave their encounter into a higher stage of happiness by sharing their joy with other new readers. Borrowing from Spinozian dictum, we could conclude that their happiness is not the reward of the reading but the joyful reading itself.

■ **Key words**: the common reader, reading, gift, becoming-author, creativity, singularity, happiness
(일반 독자, 읽기, 선물, 작가-되기, 창조성, 독특성, 행복)

논문 접수: 2009년 5월 15일

논문 심사: 2009년 6월 2일

게재 확정: 2009년 6월 12일